

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(2보)

-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신속한 사고 복구 및 철저한 원인 규명 지시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,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.
 - 백 차관은 “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복구와 부상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, 종사자 안전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”하라며
 - “문자,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 하고,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을 지시하는 한편,
 - “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”을 지시했다.
 - 한편, 복구장비를 투입하여 복구 중이며, 복구예정 시각은 금일 15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아울러, 부상자(경상)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며, 지장열차*는 충돌 무궁화호 열차 1편성과 KTX 열차 1편성이며,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운행 중에 있다.
- * 무궁화 열차(회송 후 운행계획): 서울09:53~부산15:41 → 34분 지연출발
KTX-산천 열차: 서울09:27~부산12:16, 편성 10량 → 25분 지연출발
- 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, 철도안전감독관, 교통안전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하여 철도안전법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 (044-201-4603)

